

## 차액결제거래(CFD Trading)의 정의

차액결제거래(CFD Trading)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종류로서, 일정 증거금을 지불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 팔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의 맥락.

### 핵심요약

- 차액결제거래는 파생상품의 종류로, 일정 증거금을 지불함으로써 투자대상의 가격변동에 대한 차액을 인식할 수 있는 상품임함.
- 적은 비용(증거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투자자산을 온전히 보유하는 것과 같은 수익을 인식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음됨.
-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르게 변동될 경우, 적은 변동만으로도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차액결제거래(CFD Trading)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차액결제거래(CFD Trading)는 투자자가 투자대상에 대한 취득금액을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서, 투자대상이 되는 증권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았지만 마치 소유한 것처럼 온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파생상품입니다.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구매자(투자자)와 판매자(발행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과 약정기간 만료시기의 가격의 차이를 계산하여, 수익인식자에게 지불합니다. 만약 투자자가 투자대상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할 경우, 차액결제거래(CFD Trading)를 구매(long)하여 레버리지 효과와 더불어 더 가격상승에 따른 더 많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 계약만료시기 까지 기다리거나 중간에 CFD를 매각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CFD거래는 투자(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헛지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경우, 원자재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CFD거래를 가입/구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증거금)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을 헛지할 수 있습니다.

## 차액결제거래(CFD Trading)의 단점, 위험은 무엇인가요?

CFD의 장점 중 하나는 증거금을 통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으로써, 만약 투자자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더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아케고스 펀드가 CFD를 포함한 여러가지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투자했는데, 주가가 오를 때는 막대한 수익을 인식했으나, 주가가 떨어지면서 마진콜이 발생했고 추가 증거금을 제시하지 못해서 투자포지션이 모두 청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케고사 사태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월가 역사상 개인이 단기간에 가장 많은 손실을 보게된 사례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해줬습니다.

## CFD 핵심 포인트 ‘무소유’, ‘10배’, ‘파생’

CFD의 첫 번째 특징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CFD 거래를 통한 주식 매매 이익과 손실을 가져가는 실질적 주인이지만, 서류상의(법적인) 주인은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계 증권사다. 이 둘을 중개해주는 게 국내 증권사들이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세만 내는 일반 주주와 달리 현행법상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 대주주(상장사 주식 15억원 이상 보유)들이 최근 CFD 거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이유다.

게다가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내년 4월부터는 보유 주식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부터는 3억원으로 조정된다. 개인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의 최대 27.5%를 납부해야 한다.

CFD의 두 번째 특징은 '차액만 결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1주가 5만원일 때, 6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가(1주를 5만원에 사는 대신) 1주에 대한 권리를 5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 삼성전자 가격의 10%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증거금율은 10~40%로 투자종목마다 다르다. 우량 종목일 수록 증거금률이 낮아 더 높은 지렛대(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치로 따져보면 그 효과가 실감난다. 예상대로 삼성전자의 주식이 6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거래의 경우 5만원을 투자해 1만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은 20%다. CFD 거래는 5000원을 투자해 1만원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률은 200%가 된다.

이처럼 수익률이 치솟는 것은 파생금융상품인 CFD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 때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한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이 4만원으로 떨어지면 5000원을 투자했지만, 1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수익률이 -200%가 되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거래 위험도 크다. 시장 상황에 따라 원하지 않아도 증거금률이 올라 추가 금액을 내야할 수도 있으며, 일반 주식과 달리 매일매일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달러로만 결제가 가능해 환차손도 따져봐야 한다.